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1 엄마와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① 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여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③ 가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④ 겨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진수가 말한 “pok!”, “pang!”은 어떤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 ① 풍선이 터지는 소리
- ②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 ③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
- ④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소리
- ⑤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는 소리

3 진수가 말한 “pok!”, “pang!”과 같은 표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① 감각적 표현 ② 사실적 표현
- ③ 상상적 표현 ④ 복잡한 표현
- ⑤ 지루한 표현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7)

소나기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쏘고 있나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

소나기 그치고 나면
하늘빛이 더 맑다

4 말하는 이는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를 어떤 소리에 빗대어 표현했습니까?()

- ① 눈이 내리는 소리
- ② 잘 익은 콩을 쏘는 소리
- ③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 ④ 새들이 날아오르는 소리
- ⑤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

5 밑줄 친 ‘또로록’을 넣고 시를 읽을 때와 빼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은야: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시가 지루하게 느껴져.
준희: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느껴져.
이준: ‘또로록’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모습이 더 실감 나게 느껴져.

()

6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 ① 더 맑다. ② 흐려진다.
- ③ 어두워진다. ④ 구름이 생긴다.
- ⑤ 붉게 변한다.

7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10)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고,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
㉠“뿌우우우웅!”
어느 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
㉡“쿵작 뽕작 띠리리라라.”
노랫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났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뽀뽀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
큰 배 뒤편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

8 이 글에서 갈매기가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큰 바위섬에 산다.
- ② 물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
- ③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 ④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떠다.
- 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는다.

9 ㉠, ㉡은 어떤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알맞은 것을 골라 선으로 이으시오.

- | | | | | | |
|-----|---|---|---|---|--------------------|
| (1) | ㉠ | • | • | ㉡ | 큰 배에서 나는 노랫소리 |
| (2) | ㉡ | • | • | ㉠ |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오는 소리 |

10 큰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손을 흔들고 있었다.
- ②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 ③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 ④ 아이들은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다.
- ⑤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고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14)

(가) ㉠톡톡! 바스락!
㉡어, 이게 뭐지?
콕콕 쪼아 봤어.
짹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 입 깨물어 보았지.
와그작. / 바삭! 바삭! / “까아악!”
이…… 이 맛은 뭐지?
㉢“까아악!”
이…… 이 맛은 뭐지?
㉣그건 마치 홀썩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느낌이었어.
바삭! 바삭! / “더 먹고 싶어!”
우리는 큰 배를 따라 날았어.
사람들이 던져 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는 배에 바짝 붙어서 날아야 했지.

(나) “짹조름하고 고소해!”
“물고기처럼 비린내도 안 나고, 물컹하지도 않아!”
“끼룩! 더 먹고 싶어!”
우리는 바삭바삭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어.
우리는 한동안 바삭바삭을 맛볼 수 없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

11 ㉠~㉣ 중에서 ‘무엇인가를 쪼는 모습과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문장의 기호를 쓰시오.

()

12 ㉢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

- ① 큰 배를 처음 본 느낌
- ② 물고기를 처음 먹은 느낌
- ③ 하늘을 처음 날아 본 느낌
- ④ ‘바삭바삭’을 처음 맛본 느낌
- 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 느낌

13 ‘바삭바삭’이 물고기와 다른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달콤하다. ② 축축하다.
- ③ 말랑말랑하다. ④ 물컹하지 않다.
- ⑤ 비린내가 안 난다.

14 ‘바삭바삭’을 찾아 사람들 마을로 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여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기차 타고 쿵쿵, 버스 타고 툼툼, 다시 타박타박 만나절을 가면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에 장승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 장승 친구들이 살고 있지요. 지루한 한낮, 멧쟁이 장승이 빠드렁니 장승을 놀렸어요. “하하, 넌 이가 빠드러져 수박 먹기 좋겠다.” 빠드렁니가 눈을 흘기면서 말했어요. “그럼 수박 좀 가져와 봐. 이 ‘잘난 척 왕자’야!” 그러자 낮잠을 자던 통눈이 장승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휴, 시끄러워. 낮잠 좀 자게 조용히 해.” 하지만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나요.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 날아서 훨훨, 헤엄치며 침병침병. 그렇지만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 장승 친구들은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숨바꼭질도 해요.

15 장승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깊은 산골에 있다.
- ② 마을에 기차역이 있다.
- ③ 장승 친구들이 살고 있다.
- ④ 마을 앞에 큰 도로가 있다.
- ⑤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16 다음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한 말을 찾아 쓰시오.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

()

17 장승 친구들은 왜 밤이 되면 신바람이 났을지 쓰시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0)

(가) 멀리서 새벽닭 소리가 들려오자 빠드렁니가 소리쳤어요.
“벌써 아침이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 못하게 돼!”
모두들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런데 멧쟁이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멧쟁이는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그만 날이 밝은 줄도 모른 거예요.
멧쟁이는 이제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나) 며칠이 지난 뒤, 멧쟁이한테 놀러 갔던 짱구가 ㉠ 달려와서 말했어요.
“없어졌어. 멧쟁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지?”
모두들 놀랐어요.
짱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옹기를 가져가더니 멧쟁이도 데려간 것 같아.”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도 멧쟁이처럼 잡혀갈 거야.”

18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꼭꼭 숨어 있던 장승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

19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 ① 푹푹
- ② 푹푹
- ③ 불끈
- ④ 헐레벌떡
- ⑤ 침병침병

20 이 글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한 가지 쓰시오.

